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13, 정당화, 번호 2, 역사적 정찰 그리고 체계적인 공식화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3, 정당화, 번호 2, 역사적 정찰 및 체계적 공식화입니다.

우리는 칭의 교리를 통해 구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저는 공식 로마 가톨릭 문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열정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는 복음에 열심입니다. 그러니 제가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지만, 복음에 열심인 것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습니다.

트렌트가 종교 개혁 교리에 대한 로마의 역사적 진술이라면, 그 교리를 부인하고 정당화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리를 확대하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1992년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60년대 중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많은 결과를 적용했으며, 1992년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수백만 부 사본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트렌트의 가르침과 저주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대중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트렌트만큼 철저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문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하고 추기경 요제프 라칭거가 칭찬했는데, 나중에 라칭거, 실례합니다, 추기경 요제프 라칭거, 아니 오히려 요제프 추기경 라칭거가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되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칭의에 관해 이 문서와 많은 의견 불일치를 발견합니다.

교리서의 정당화 교리는 트렌트 공의회를 반영합니다. 제2조, 은혜와 정당화를 고려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문단 번호를 언급하겠습니다.

공인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공인된, 공인된, 로마 가톨릭 교리의 진술인 대중적인, 대중적으로 표현된, 비교적 짧은 범위로 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출처입니다. 일부 진술에는 우리가 동의하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세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정의롭게 만드신다는 언급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의 수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살아 있는 제물로 바치셨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며, 그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칭의는 신앙의 성사인 세례에서 부여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 변화시키며, 그는 그의 자비의 힘으로 우리를 내적으로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생의 선물입니다.

주석은 로마서 3:21-26에서 트렌트 공의회를 인용합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2항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정의롭게 만들거나 의롭게 만든다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칭의가 *ex opere operato* 라는 사실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례에 의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로마의 가르침은 그 성사들이 *ex opere operato*, 즉 일한 일을 통해 은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주교에 의해 성임된 가톨릭 사제가 가톨릭 교회를 대신하여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미사라는 희생으로 그리스도를 바칠 권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리서는 또한 정당화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세 가지 성경 인용문이 이어지고, 그 중 두 가지는 점진적 성화를 다룹니다. 로마서 6:3과 4, 8절과 11절. 다음 문단은 죄에 대한 죽음, 새 생명으로 태어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루며, 이 중 어느 것도 정당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트렌트와 일치하게, 교리서는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 사이에 협력을 확립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의지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1993항). 교리서는 사람들이 신성화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트렌트를 넘어서며, 그 증거로 신화에 대한 아타나시우스를 인용합니다(1987, 1988항).

성령의 첫 번째 은혜의 사역은 회심입니다. 이는 은혜에 감동되어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죄에서 떠나 위로부터 용서와 의를 받아들일 때를 말합니다. 트렌트의 인용문이 이어집니다. 칭의는 죄의 사함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사람의 성화와 갱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교리 문답은 칭의에 점진적 성화를 포함합니다. 칭의는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주도에 따릅니다.

그것은 인간을 신과 화해시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치유합니다. 1989, 1990항. 다시 말하지만, 인용하자면, 성령은 내면의 삶의 주인입니다.

속사람을 낳음으로써 정당화는 그의 존재 전체의 성화를 수반합니다. 인용문, 단락 1995. 이 교리 문답에는 점진적 성화와 정당화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구에 있는 사람이 좋은 가톨릭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과 수용을 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가톨릭 신자이든 좋은 개신교 신자이든 좋은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든 하나님의 은총과 수용을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로마의 견해가 변하지 않았다는 추가 확인은 Rahner, Karl Rahner, and Vorgrimler's Dictionary of Theology, 1981에서 제공됩니다. 이 도구는 정당화를 트렌트 공의회 용어와 유사한 용어로 정의합니다.

인용문: 정당화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자유로운 행위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와의 관계로 이끄시는 사건입니다. 그는 믿음의 말씀과 성례의 표징을 통해 인간에게 그의 신성한 본성의 일부를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이 정의 또는 의로움은 단순히 법적 또는 법정적 방식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참으로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며, 동시에 죄의 용서입니다.

어떤 개인에게도 구원에 대한 반사적 확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정의, 의로움, 하나님이 주고 받은 것은 사람이 심각한 죄로 신성한 사랑을 거부하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정당화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중 다수는 트렌트 공의회보다 더 현대적으로 표현된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미 충분히 다루었을 것입니다. 저는 정당화 발표와 성경적 발표에서 이에 응답할 것입니다.

종교 개혁과 정당화. 16세기 개신교 종교 개혁은 주로 신학적 운동이었지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재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종교 개혁은 획일적이기는커녕 루터교, 칼빈주의, 성공회, 재세례파 교회를 낳았고, 개신교에 대한 반발로 로마 가톨릭 반종교 개혁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교 개혁 교회는 연합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 개혁 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고수했기 때문에 복음에 동의했습니다.

성경만이 신학과 윤리의 최고 권위입니다. 이것은 다섯 가지 종교 개혁  
 솔라 중 첫 번째이며, 다른 하나는 솔라 피데이(sola fidei)입니다.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솔라  
 그라티아(sola gratia)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Solus Christus,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며,  
 soli Deo gloria,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Sola scriptura  
 ,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규범이며, 다른 규범을 판단합니다. Sola fidei  
 ,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Sola gratia,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Solus Christus  
 ,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재자이며, soli Deo gloria,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실제로 sola scriptura는 종교 개혁자들이 신성한  
 성경과 신성한 전통이 동등하게 권위 있다는 로마의 견해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신 솔라 스크립투라는 교리와 기독교적 삶을 위한 최고의 자리로 성경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칼빈은 이성, 전통, 경험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성경을 이러한 하위 권위 위에 두어 판단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를 구원에 적용한 루터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받는 자유로운 칭의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혁자들은 루터의 칭의 교리를 수용했고 중세 로마 가톨릭의 칭의  
 교리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로마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함적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그러한 은혜는 죄인의 자유의지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만한 선행을 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칭의가  
 법정적이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법정적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변형적이거나 변형적이며, 최종적인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로마는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시너지즘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개혁자들은 단독 구원을 고수했으며,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을 구원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 교회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근원이며, 세례, 고해성사, 성찬례 등의 성사를 통해 분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이 견해에 반대했고 하나님의 무상 은혜에 대한 복음을 옹호하고 전파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루터와 그의 동료 개혁자들은 칭의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에 대한 법적 그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변혁적이지 않고 법의학적입니다. 그것은 선언적 행위이지 평생의 과정이 아닙니다. 정당화에서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바울은 칭의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칭의받는 것이 아니라(갈라디아서 2:1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받는다 것을 압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인간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서 2:16). 의롭다함은 죄인을 내면적으로 정화시키거나 선행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는 루터의 유명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simul justus et peccator* 가 됩니다. 동시에, 의롭고 죄인인 *simul*, 동시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동시에 *justus*, 정의로운 또는 의로운, *et*와 *peccator*, 동시에, 의롭고 죄인이라는 단어를 얻습니다.

재판관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의롭다. 동시에, 그들 스스로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루터의 교리를 방종을 조장한다고 로마가 비난하는 것은 요점을 놓친 것이다.

비록 칭의가 변형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변형적인 구원의 적용의 다른 측면들과 상관관계가 있거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칭의하시는 것은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거듭남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고, 동료 신자들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증거합니다.

점진적 성화에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고, 실제적인 거룩함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로마가 칭의와 점진적 성화를 혼동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구원을 얻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개혁자들이 인식했듯이, 바울은 칭의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리할 수 없이 연결했습니다.

인용문, 이것이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16에서, 은혜에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후손에게 보증하기 위해 썼습니다. 공로 신학, 즉 인간이 선행적 은혜 등으로 아무리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두기 때문입니다. 인용문, 의가 율법을 통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21. ESV에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마지막 구절은 강력합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아니하노라"고 썼습니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는 헛되이 죽었습니다. 친구들이여,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위에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25.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치실 때, 그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돌리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인용문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으므로, 그 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21.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로움, 평생의 순종은 우리에게 헤아려지고, 그의 수동적 순종, 고난의 순종,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헤아려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이다. 전자는 그가 아버지 와 율법에 대한 그의 평생의 순종을 의미한다.

후자는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단어의 의미가 바뀐 것은 그의 수동적 순종이 무활동이 아니라 라틴어 *passio* 에서 유래한 것으로 , 그리스도의 수난이나 고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능동적 순종이나 평생 순종이라는 용어를 능동적 순종, 그의 고난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으로 사용하고 싶다. 빌립보서 2장.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더 나은 평생 순종, 고난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로마서 5:19),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로마서 5:1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때 그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받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갈라디아서 5: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갈라디아서 5:6). 따라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요일 4:1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요한복음 15:12, 13).



칭의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것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에베소서 2:10). 에베소서 2장과 디도서가 성경에서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해서 말하는 곳으로 제 기억에 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10절은 그것을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느니라.

의미는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것인데,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새 창조에 속한 자들로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적 정찰이며, 평소보다 더 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관점을 가진 기독교 생활에 대한 정찰보다 더 깊습니다. 하지만 로마와 종교 개혁의 역사적 관점이 기독교 신학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정당화 체계적 공식화. 성경적 서론을 검토하고, 정당화에 대한 성경적 서론을 제시하고, 교리의 역사를 탐구한 후, 우리는 정당화에 대한 체계적 요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원의 적용에 대한 성경적 그림은 다양한 영역에서 생겨납니다.

부르심은 우리 감각의 영역, 특히 청각에서 온다. 거듭남은 죽음과 생명의 영역에서 온다. 거룩함은 의식적 부정함과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

회심은 우리가 보았듯이 회개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칭의와 입양은 모두 법적 이미지이지만 법원의 다른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입양은 가족 법원에서 나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형(대문자 B)으로, 구속자로, 신자들을 하나님이 가족 생활의 혜택과 책임을 주시는 사랑하는 자녀로 제시합니다.

칭의는 입양과 마찬가지로 법적 이미지이지만, 법정의 다른 부문, 즉 형사 부문에 속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든 땅의 입법자이자 재판관으로 묘사하는 더 큰 성경적 법적 그림의 일부이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에게 반항하고 그의 법을 어긴 죄인으로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갈라디아서 4:4, 5).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셨을까요? 인용문,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때때로, 옛 자유주의는 성경에서 이 모든 법적 틀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는데, 성경은 법률 용어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인간, 죄, 그리스도, 그의 구원 사역, 구원의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이 법률 용어로 묘사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하지만 그 이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구원의 적용은 정당화보다 더 크지만, 정당화보다 덜하지도 않습니다. 정당화는 구원의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즉, 그는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의롭다고 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의롭다고 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받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귀속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3번 질문과 답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원의 적용의 각 측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필요로 하는 것과 대조하여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칭의의 필요성은 정죄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에베소서 4:24 ESV). 하지만 타락 후에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은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필요성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18, 19,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로마서 5:18과 19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 외에도 실제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23,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아담의 원초적 범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오리스트,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는 아담 안에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죄, 현재 시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미 던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제안한 대로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한 던의 주석을 읽기 전에 독단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제 자신의 이해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개하는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화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책의 주제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발표한 직후, 바울은 또 다른 계시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다루는 긴 진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의의 계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함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드러냅니다. 로마서 1:18. 바울은 이 구절을 1:18에서 3:20까지 요약으로 시작합니다

.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10과 11. 그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마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목표는 모든 입을 닫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지식은 율법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로마서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말한 것은 의롭다고 여겨질 필요가 정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독교 가르침을 요약한 위대한 내용에서 그는 그 필요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 필요성을 두 가지에 근거로 삼았습니다.

우선 로마서 1:18에서 3:20까지의 실제 죄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아담의 원죄입니다. 바울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의 죄와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즉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나쁜 소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죄와 심판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한 준비로 제시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눈에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므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정당화의 필요가 정죄라면, 정당화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를 나란히 놓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거든 하물며 은혜의 넘침과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요? 로마서 5장 17절. 바울은 아담의 죄로 시작된 사망의 왕노릇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온 생명의 왕노릇을 대조합니다. 사도는 두 아담과 그들의 백성에게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 사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하는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할 자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아담의 죄의 해로운 영향보다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은혜의 넘치는 흐름과 의의 선물을 생산합니다. 의의 선물은 그의 백성이 영원한 삶에서 통치하게 합니다. 더글러스 무는 여기서 의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상태라고 올바르게 말합니다. 더그 무, *로마인에게 보낸 서신*, 신약성경에 대한 새로운 국제 주석, 339쪽.

로마서에 대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설인데,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흐름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들의 지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은혜와 칭의를 결합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칭의를 받습니다.

또는 디도서 3:6과 7.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3, 6, 7.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롭다 하심의 궁극적 근원은 그의 비할 데 없는 은혜이다.

루터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대신 흘러나와 선을 베풁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그들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마태복음 9:13). 이것은 십자가에서 태어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돌며, 선을 누리지 못하지만, 악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립니다.

루터의 저작, 31권, 57페이지.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 정당화의 근거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구원에 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3, 정당화, 번호 2, 역사적 정찰 및 체계적 공식화입니다.